

국내 파렛트 산업 발전과 회원사 이익 보장에 주력 파렛트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중점



이 병 성
(사)한국파렛트협회 회장

지난 3월 25일 (사)한국파렛트협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병성 (주)세화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이병성 신임 회장을 만나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장문영 초대 회장님과 제2대 김태규 회장님께서 협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성을 다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협회를 육성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 제3대 회장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협회 회원사의 이익 보장은 물론 국내 파렛트 산업 발전에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파렛트와 처음 접하게 된 동기와 그간의 경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성사(지금의 LG전자)에 입사해 줄곧 플라스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주)세화를 설립하게 됐고, 지난 1992년에는 지금의 (주)한국파렛트폴 서병륜 사장님의 플라스틱 파렛트 납품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세화파렛텍을 설립, 플라스틱 파렛트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 해도 파렛트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망설임이 있었으나 저를 믿고 납품 제의를 해 주신 서병륜 사장님에 의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회장님은 임기 동안 협회를 이끄시면서 꼭 수행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모든 회원이 필요로 하고 참여하는 협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 물류 표준화 추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관련 부처 및 물류업계, 학계와 긴밀한 유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 표준화 및 파렛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주력해 나갈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중국 및 아시아 각국의 파렛트 업계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물류중심국 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ISO / TC51의 파렛트 관련 국제 표준규격 제정·개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익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문기구로서 업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렛트 기술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연구용역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자립하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를 더욱더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파렛트화 되지 않은 많은 산업부분의 파렛트화 및 컨테이너화 추진사업에 역점을 뒀 우리나라 물류 선진화에 힘쓸 것이며 회비수입과 사업 수익을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얼마 전 목재 파렛트의 열처리 문제를 놓고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협회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또는 열처리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 및 2001년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 - 1호 (2002년 1월 19일) 제1조 (목적)에 보면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엽수는 수피가 제거된 나무로 제작되어야 하며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소독처리를 실시해 포장재에 아래에 증명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열처리 업계의 난립입니다. 때문에 협회는 난립돼 있는 열처리 업체를 정리하고 부실 업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약 8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표준파렛트 규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가표준파렛트(일관수송용) T-11형(1,100×1,100)은 ISO 국제규격파렛트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계에서는 반대 또는 회의적인 주장을 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SO TC51은 세계표준화기구 파렛트 전문위원회를 말하며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국제표준규격은 ISO 6780(일관수송용 파렛트의 주요 수치 및 허용 오차)으로 1963년 ISO F198 및 ISO R329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98년에는 처음 규정을 개정해 1,200mm×1,000mm, 1,200×800mm, 1,140×1,140mm, 1,219mm×1,016mm의 4개 규

격과 ISO 6780 전문의 1,100mm×1,100mm파렛트도 ISO 3676(유닛로드치수)±40mm 규정에 따라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해상컨테이너와의 정합성에서 가장 뛰어난 파렛트로 인정받고 있고, 그 사용국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T-11형 파렛트는 이미 환태평양 국가들이 표준규격파렛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 및 뉴질랜드로 곧 국가규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모든 업계가 적극 동참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내 파렛트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업계, 학계, 단계, 관계 부처의 상호 보완 통한 관심과 열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파렛트의 폐기 문제에 있어 아직까지는 재활용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파렛트 재활용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수를 통한 반복 사용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해진 기자